

2 de Mayo

말 옮긴이 : 뱅뱅뱅

● 역사 노트

1808년, 스페인의 주권자인 부르봉 왕가의 카를로스 4세는, 총신 마누엘·고도이에게 모든 정치권한을 양도했다. 하지만 나폴레옹에게 알가르베(포르투갈)의 왕위를 약속한 고도이는 스페인-프랑스간의 퐁텐느블루 조약을 체결했고, 결국 스페인 왕국은 영국의 전통적인 동맹인 포르투갈로 향하는 프랑스군의 영내 통과를 허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조약에 근거해,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는 프랑스군은 이베리아반도 내에 무수한 군사 거점을 쌓아 올릴 수 있게 된다.

나폴레옹·보나파르트에 진정한 계획은, 스페인을 정복하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 자신의 형 조제프·보나파르트를 왕위에 올리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스페인의 왕족은 차례차례로 프랑스의 바이올레에 보내져 유폐되었다. 이 중에는 후에 왕위를 계승하는 「대망의 왕」페르난도 7세도 있었다.

그 사이, 일반 시민과 주둔군 사이에서는 서서히 긴장이 높아졌고 프랑스군이 단순히 포르투갈로 향할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마드리드에서 프랑스 군총사령관 마르셀·조아·무라는, 인구 160,000명의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시내에 10,000명, 근교의 마을을 합하여 총 20,000명의 병사를 배치하고 있었다. 긴장이 극한까지 높아진 1808년 5월 2일, 스페인 시민과 프랑스군 사이에서 발발한 이 사건은 많은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그 날 아침, 왕궁으로부터 왕가의 마차가 나왔다. 이유인 즉슨, 남은 왕족인 에트르리아 왕비(마리아·루이사·호세피나·데·부르봉)와 왕자(프란시스코·데·파우라)를 프랑스에 보내기 위해서였다. 이 사건을 목격하고 있던 석공 호세·블라노·모리나·소리아노는, 평소 프랑스의 권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여 온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대역이다! 왕자를 잡아가고 있다! 대역이다!». 스페인 시민에 의한 반란은, 확실히 이 절규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랑스의 총사령관 무라는 그리말디 궁전에 숙영하고 있었고, 왕궁 앞 오리엔테 광장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르그랑 장군을 배웅했다. 르그랑은 폭도화된 마드리드 시민에게 물리던 중 와론 왕국군 스페인 사관에 의해서 위험에서 구출되었다. 하지만

많은 프랑스 병사가 폭도에게 잡혀 살해당했다. 10시를 전후하여 황제 친위 화력 대대가 오리엔테 광장에 인원과 대포를 배치했고, 곧바로 4500명의 스페인 시민을 향해 경고 없이 발포했다.

이 소식은 급속도로 마드리드에 퍼졌고 많은 스페인 시민은 복수에 불타 지나가는 프랑스인은 무조건 몰살하였다. 각각 지팡이나 나이프, 조리 기구, 돌, 도끼, 군인이었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오래된 칼 등으로 무장하였다. 무질서와 혼란이 대로 전체에 소용돌이치기 시작했고, 프랑스 군대는 분노한 스페인 시민들과 직면하게 되었다. 급하게 지도적인 인물들 밑으로 모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사태를 미리 예측해 목적의식을 가지고 무기를 확보하거나, 프랑스군의 마드리드 입성을 저지 하는 집단도 있었다.

하지만 시민 모두가 반란에 참가한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에 의한 스페인 점령을 열망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프랑스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새로운 정치체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태한 군주제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었다. 혹은 반란 후 프랑스의 보복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가족이나 일, 권리를 잃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이 운명의 날, 실제로 대로에 나와 싸운 시민의 수는 3~4,000명을 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프랑스군의 반란 진압 작전은 속전속결 이었다. 주요 도로를 따라 부대를 도심으로 진군시켰고 선동자를 소탕 하면서 태양의 문과 마요르 광장에 집결 시키려 했다. 그러나 명령을 전하는 전령 대부분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었고 작전 수행이 점점 지연되었다. 예를 들면, 브엔·레티로 공원에 주둔하고 있던 기병대가 늦게 진압에 참전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한편, 스페인군은 마드리드군 사령관 명령에 따라서 막사에 머물고 있었다. 마드리드 주둔군은 약 4,200명 정도의 병사와 사관 이었지만 사실 전투 기술에 뛰어난 군대라고 하기 보다는 사법경찰 수준이었다. 조금은 실력이 있는 스페인 부대(주 의용병의 소규모 분대, 왕 친위대, 척탄병, 마리아·루이사 경기병등)도 4,600명 정도 존재했다. 병사 중에는 명령에 따르지 않고 탈영하여 시민에게 무기나 탄약을 보내거나 반란에 참가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병사들과 더불어 반란을 지원하는 사관도 있었다. 몬테레온의 대포 광장에서 수 명의 프랑스 병사를 포로로 하여 주위의 시민에게 가능한 무장을 시킨 루이스·다오이스 대위나 페드로·베라르데 대위가 그 예이다.

도시의 다른 장소에서도 격렬하고 가혹한 전투가 차례차례로 일어나고 있었다. 실로 영웅적인 일화의 여러 가

지가 있다. 톨레도 문에서는 여성들이 생명을 던져 중기 병의 발밑에 몸을 눕혀 칼이나 가위로 말을 찌르거나 베어 기병을 낙마시켰다. 그리고 법정 형무소의 수감자들까지도 「스페인을 위해서」 싸우며 자유의 회복을 추구하고, 전투가 끝나면 감옥으로 돌아갈 것을 맹세했다. 후에 탈주자는 오직 단 한 명이었다.

하지만 마드리드 시민의 용맹함과 신념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군의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로 반란은 서서히 진압되어갔다. 마쥔 광장, 산타크루즈 광장, 안톤·마르틴 광장에 포병대가 배치되어 아토차 대로를 봉쇄했다. 그렇게 도시는 양분화 되었고 남북으로 왕래할 수 없게 되었다. 태양의문과 세라다문 주변의 전투는 아직도 치열했지만, 프랑스 군의 최대 관심사는 대포 광장을 점령하고 있는 스페인 시민들이었다.

몬테레온에서는 다오이스, 베라르데, 루이스 등의 스페인군 사관들이 훈련도 받지 않은 시민들을 신속하게 조직하여 대포 광장을 방위하고 있었다. 이곳을 강습 점거하는 시도는 몇 번이나 실패하였고, 프랑스군의 사상자는 간과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광장을 향해 그나마 부족한 포탄을 다 쏘아도 프랑스 군의 돌격은 계속 실패하였다. 전투가 시작되고 수 시간 동안 제압되지 않은 장소는 몬테레온 뿐이었다. 총알이 거의 떨어져 갈 무렵, 마침내 광장의 방위 세력은 진압되었고 지휘를 하던 사관들은 처형되었다.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싸웠던 사람들은 그들을 이 날의 영웅으로서 계속 기억했다.

오후가 되고, 거리란 거리에서는 프랑스군과 스페인군의 사관들이 나타나 흰 손수건을 흔들면서 「평화롭다, 평화롭다, 모든 것은 끝났다」라는 구호를 반복하여 시민들을 진정 시키려고 했다. 이 때 무라는 많은 인간의 총살을 명령했지만, 실제로 총살대는 그 날 아침부터 처형을 계속하고 있었다. 많은 스페인인들이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던 칼이나 가위, 재봉 바늘 때문에 죄를 의심받아 생명을 잃었다. 또한 집 앞에 프랑스 병사의 시체가 있으면 그 집의 거주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고, 단지 심증만으로 즉시 투옥되는 사람도 있었다. 반란에 대한 부당한 보복으로 조직적인 약탈, 일련의 암살, 잔학행위를 일삼았다. 스페인 회화의 거장인 고야는 가장 처참한 일화의 하나를 그려 후세에 남겼다. 5월 3일 아침에 프린시페·피오 산에서 행해진 프랑스군 총살대에 의한 처형이 그것이다. 이 처형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후안·수아레스는 나중에 이 날의 비극을 증언했다.

반란 및 프랑스군의 가혹한 보복 소식은 순식간에 스페인 전 국토에 퍼졌다. 마드리드 남서쪽 근교 취락인 모스트레스에 몬테레온 공원의 생존자인 하신티·루이스

중위가 해군 서기관 후안·페레스·빌라미르에게 수도의 상황을 보고했다. 82세의 모스트레스 시장 앙드레스·트레는 농사일을 마치고 오는 길에 후안으로부터 사건을 듣게 되었다. 그는 다음 세대의 스페인인에게 감명을 주는 대담함을 발휘해, 프랑스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기 위한 사절을 스페인에 파견했다. 이렇게 비극적인 근대 스페인의 독립전쟁이 막을 열게 된 것이다.

● 룰

「2 de Mayo」는 1808년 5월 2일에 일어난 사건을 재현하는 역사 시뮬레이션이다. 이 날, 마드리드 시민과 스페인군은 나폴레옹의 프랑스 점령군에게 항쟁했다. 이 게임은 2인 게임으로, 한 쪽이 스페인, 다른 한 쪽이 프랑스를 맡는다. 게임은 10턴으로 이루어지고, 대략 30분 전도가 소모된다(1턴은 실시간으로 약 30분). 각 턴은 준비, 명령, 이동, 해결의 4페이지로 나누어져 있다.

제10 턴 종료 시에 이하의 조건을 모두 달성하면 프랑스의 승리가 된다.

- 모든 스페인인 유닛의 제거
- 마드리드의 각 성문 (1-6-16-20 지역)을 적어도 1개 이상의 프랑스 유닛이 점령
- 프랑스 유닛의 손해수가 3 이하 (이 조건은 이벤트 카드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다)

위의 조건이 하나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스페인 플레이어의 승리가 된다.

내용물

- 21개의 지역으로 분할 된 마드리드 보드 1매.
(주 : 지역 14, 15, 16 은 프랑스군 이동에 대해서 특수한 효과가 있다.)
- 시의 성벽 외에 그려진 화살표는, 대응하는 프랑스 군이 시내에 들어가는 장소를 나타내고 있다(3턴 이후). 지역6에는 2개의 화살표가 그려져 있지만, 이것은 역사적 사실의 재현에 지나지 않고 프랑스군에게 특별한 혜택이나 제한을 주는 것은 아니다.
- 목재큐브 41개 : 파란색 30개(프랑스군), 빨간색 10개(스페인군과 시민), 흰색 1개는 턴 마커.
- 이벤트 카드 22장 : 프랑스 용 11장(파랑), 스페인용 11장(빨강).
- 플레이어 참조카드 2장.
- 턴 트랙 카드 1장.
- 룰 북.

정의

- 목재큐브 1개는 유닛이라고 표기한다.

- 한 지역에 존재하는 1개 이상의 동색 큐브를 「그룹」이라고 표기한다.
- 프랑스 플레이어는 파랑 그룹을, 스페인 플레이어는 빨강 그룹을 조작한다.
- 카드의 효과와 기본 룰의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카드의 효과를 우선한다.
- 프랑스와 스페인측의 큐브가 동시에 존재하는 지역을 전투지역 이라고 한다.
- 특별히 기술이 없는 한, 사용된 카드는 디스카드 된다.
-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버릴 수 없다. 카드「프랑스의 협력자」는 예외.

준비

이하와 같이 초기 배치한다.

·프랑스측

지역 1 에 2 유닛

지역 6 에 2 유닛

지역 10 에 1 유닛

지역 11 에 2 유닛

지역 19 에 2 유닛

또한 아래와 같이 마드리드 시외에 프랑스 군을 배치한다. 이러한 군대는 제 3턴 부터 이동할 수 있어, 인접하는 지역에서 마드리드 시내로 들어간다.

지역 1 의 밖에 5 유닛

지역 6 의 밖에 5 유닛

지역 16 의 밖에 5 유닛

지역 20 의 밖에 5 유닛

·스페인측

지역 4 에 1 유닛, 지역 12 에 1 유닛

지역 8 에 1 유닛, 지역 15 에 1 유닛

지역 9 에 1 유닛, 지역 17 에 1 유닛

지역 10 에 1 유닛, 지역 20 에 1 유닛

(남은 프랑스군 유닛 1개와 스페인 유닛 2개는 이벤트 카드로 편입될 때까지 맵 옆에 놓아둔다)

흰색 큐브를 턴 진행 카드의 제 1턴에 둔다. 스페인 플레이어는 제 1턴의 준비 페이지의 행동으로「호세·블라노·모리나·소리아노」(Jose Blas Molina Y Soriano) 카드를 가져간다. 프랑스 플레이어는 「포병」(Artillery) 이나 「마르셀·뮈라」(Marshall Joachim Murat) 카드 중 한 장을 가지고 다른 한 장은 덱에 다시 넣는다.

각 플레이어는 상대의 덱을 섞는다. 프랑스 플레이어가 「포병」을 즉시 사용하는 경우, 앞이 보이게 맵 옆에 펼쳐놓고 게임이 끝날 때까지 둔다. 이상이 끝나면, 제1

턴의 명령 페이지가 진행된다.

턴 진행(4 페이지의 설명)

1 : 준비 페이지

각 플레이어는 이벤트 카드 덱으로부터 카드를 1장 드로우 한다(제 1턴의 카드는 위의 설명에 의해 이미 선택하고 뽑은 것임에 주의). 한 쪽 플레이어의 카드가 상대보다 3장 이상 적은 경우, 상대는 카드를 드로우 할 수 없다.

주 : 정확히 3장 적을 때는, 자신이 1장을 드로우 하고 상대방도 드로우 하게 할 것인지, 둘 모두 드로우 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한다.

주 : 「즉시 사용」이라고 쓰여진 카드는 드로우 한 순간에 사용한다.

2 : 명령 페이지

각 플레이어는 이동 명령을 비밀리에 종이에 쓴다. 이벤트 카드의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이동 명령에는 이하의 룰이 적용된다.

·「이동 개시 지역→이동 종료 지역」형태로 기입한다. 예를 들면 지역 4로부터 지역 5에 그룹을 이동시키는 경우는 「4→5」라고 쓴다.

·이동 개시 지역에 인접하는 지역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역 4에 있는 유닛 혹은 그룹은, 지역 3·2·8·5 중 한 곳으로는 이동할 수 있지만, 지역 4에 인접하고 있지 않는 지역 7·9 등으로는 한 번에 이동할 수 없다.

·스페인 그룹은 복수의 목적지로 향해서 이동할 수 없다. 즉, 일단 합류한 스페인 그룹은 분리할 수 없다.(예외 : 「군중 해산」(The Mob Disperses)의 효과로는 가능)

·프랑스군 그룹은 복수의 지역으로 분할 이동할 수 있다.

·쓰여진 명령은 모두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플레이어가 일부 실행 불가능한 명령을 내렸을 경우, 모든 명령이 무효가 된다.

·스페인 플레이어는 보드상의 모든 스페인 그룹에 대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 플레이어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룹은 2개 뿐이다. 이 제한은 지역 14·15·16 으로부터 이동을 개시하는 그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프랑스 유닛이 지역6 (2유닛), 지역 20 (4유닛), 지역19 (2유닛), 지역14 (3유닛) 에 그룹을 두고 있을 때, 「6→5, 20→17, 14→7, 14→12, 14→15」라고 하는 명령은 룰 위반이 아니다. 지역 14·15·16 으로부터의 이동은 프랑스의 이동 명령 제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동 명령 수는 이동하는 그룹 단위로 센다. 예를 들면, 프랑스 플레이어가 「5→7, 5→9」라고 명령을 쓰면, 이턴의 이동수는 2개다.(한 그룹이지만 2번 이동하기 때문)

·마드리드 시외의 프랑스 군을 시내에 넣는 이동도 이동 명령 1회로 센다.

·이동하는 유닛수는 기입 하지 않아도 된다. 그룹을 분할할 수 없는 스페인 플레이어는 모든 유닛을 움직이게 된다.

주 : 「군중 해산」(The Mob Disperses)의 효과로 스페인 그룹을 분할하는 경우는 이동하는 유닛수를 기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지역 5에 3유닛의 스페인 그룹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쓴다. 「2유닛 5→9, 1유닛 5→4」

3 : 이동 페이즈

양플레이어는 동시에 이동 명령을 공개한다. 다음에, 이 페이즈에 사용하고 싶은 이벤트 카드가 있다면 사용한다. 그 후, 이동 명령이 실행된다.

스페인측이 먼저 이동을 실행한다. 이 때, 프랑스 유닛의 명령과 사용된 이벤트 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투지역에서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스페인 그룹은 과반수의 유닛을 그 지역에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

·프랑스군 그룹은 전투지역에서 결코 이동할 수 없다.

·프랑스 플레이어는 스페인측의 이동이 끝나고 각 이동 명령으로 이동하는 유닛수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지역 14에 6개의 유닛 있어 「14→7, 14→9, 14→15」라고 명령을 썼을 경우, 1개를 7에, 1개를 9에, 나머지를 15에 이동해도 좋다. 혹은 1개를 7에, 2개를 9에, 1개를 15에 이동해 14에 2개를 남겨도 괜찮다. 1개를 7에, 5개를 9에 이동해 15에 이동시키지 않을 시 모든 이동 명령이 수행되지 않기 때문에 를 위반이 된다.

·양쪽 진영의 2그룹이 지역을 바꾸는 이동을 하는(예를 들면 지역 2에 있는 프랑스군 그룹이 지역 3에, 지역 3의 스페인 그룹이 지역 2로 이동하는 명령) 경우, 둘 중 한 쪽의 그룹만 이동을 할 수 있다. 이 때, 유닛수가 많은 그룹이 이동하고 적은 그룹은 원래의 지역에 머문다. 방금전 예로, 프랑스가 3유닛, 스페인이 1유닛이 있어 프랑스 그룹에서 2유닛을 이동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스페인의 1유닛은 지역 3에 머물고, 프랑스군 그룹이 지역 3으로 이동한다.

·동수의 경우 주도권을 가진 측이 이동한다. 주도권은

상대방보다 많은 유닛을 제거하고 있는 측이 가진다. 제거한 유닛수도 동수인 경우는 스페인측이 가진다.

·유닛을 2지역 이상 이동시킬 수 없다(예외 : 프랑스의 「기병대」(Cavalry) 카드).

4 : 해결 페이즈

이동을 처리한 후에 프랑스와 스페인의 유닛이 동시에 존재하는 지역을 전투지역이라고 부른다. 이 페이즈에서는 전투지역에서의 피해(유닛 제거)를 판정한다. 피해 판정이 끝나면 턴은 종료되고 턴 마커를 한 칸 옮긴다. 이미 마커가 제 10턴 위에 있으면 게임 종료로 승리 판정을 실시한다.

· 각 플레이어는 전투지역에 있는 자신의 그룹의 전력(유닛수 + 이벤트 카드 효과)을 계산한다.

·한 쪽 그룹의 전력이 다른 한 쪽보다 많지만 2배는 되지 않는 경우, 적은 그룹에서 유닛 1개를 제거한다.

·2배의 전력차이가 있는 경우, 2개의 유닛을 제거한다.

·3배의 전력차이면 3개를 제거한다. 이하 동일.

·전력이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의 그룹도 피해를 받지 않는다.

·해결 페이즈 개시시에 양군 유닛이 존재하는 지역이라면, 비록 그 지역에 출입하는 그룹이 없다고 해도 해결 페이즈를 실시한다.

이벤트 카드

·이벤트 카드는 카드에 지정된 페이즈에 사용할 수 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조건만 채우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다. 카드의 핸드제한이나 한 번에 사용하는 카드 장수의 제한은 없다. 「즉시사용」이라고 쓰여진 카드는 준비 페이즈에 드로우 한 순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게임 종료

제10 턴 종료시에 승리 조건을 확인한다.

디자이너 코멘트

「2 de Mayo」는, 1808년 5월 2일에 마드리드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단지, 그 날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고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무장, 지휘 등에서 훨씬 뛰어난 프랑스군이 스페인의 절망적인 헌신을 압도한 역사를 재미있는 게임으로 만들기 거의 불가능했다. 플레이어빌리티를 최우선으로 게임에 재미를 가미해 양진영에게 승리의 기회를 쥐어주고, 어느 정도 사실을 단순화 해야 하는 것은 보드게임의 필연이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들과 역사적인

정확함, 최종 턴까지의 균등한 기회의 밸런스를 최대한 취하려고 노력했다.

카드에 있는 이벤트는 사실을 기본으로 하고, 그것에 관련있게 후술 했다. 그러나, 게임내의 군대의 편성이나 마드리드 시내에서의 행군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 프랑스군의 편성과 행군에 관해서 반란의 진압에 사용된 실제의 전술을 반영하려고 하였지만, 1808년 5월 2일 스페인은 게임내에서의 통솔된 모습과는 달리 통일된 명령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프랑스군이 사전에 스페인들의 이동을 알수 없었다.

이러한 요소가 짜여지고 합쳐져 게임을 재미있게 할 뿐만 아니라, 플레이어가 이 역사에 흥미를 가지고 역사를 알게되고, 전투가 있던 대로를 걸어, 이 작은 게임을 한 뒤에 개개의 사건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여 이 중요한 스페인사를 기억해줬으면 한다. 역사 지식을 널리 알고자 하는 우리의 작은 노력에 의해서 이 게임이 조금이라도 재미있어진다면, 나는 조금이나마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게임의 여러 요소에 대해

지도 : 많은 군대가 주둔 하고 있던 브엔-레티로 공원을 제외하고는, 1808년의 마드리드시를 거의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다. 프랑스군은 시외에서 주요한 대로로 진군해 중앙부의 마죄르 광장과 태양의문에 집결할 계획이었다. 또한 스페인인들이 도시에 집결하는 위험을 예견하여 황제군은 마드리드에 통하는 주요한 성문을 방어하려고 했다.

큐브 : 대립하는 군영은 빨강과 파랑으로 구별되고, 「2 de Mayo」의 프랑스군 큐브 1개는 약 1000명의 병사를 나타내며 스페인측 큐브 1개는 대략 300~500명의 시민을 나타내고 있다.

이동 룰 : 스페인 플레이어의 이점은(실제로는 스페인의 이점이 아니다), 「통일된 명령」이다. 스페인은 스페인 플레이어 한 명의 의지에 의해서 행동한다.

게다가 스페인측은 3개의 이유로 기동력을 발휘한다. 지리를 잘 아는 일, 편성 인원수가 적은 것, 명령을 기다리고 행군을 멈출 필요가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무라」나 「기병」와 같은 카드로 기습할 수 있지만, 프랑스 유닛의 이동은 현저하게 제한되고 있다. 프랑스 플레이어는 시의 중심부인 14·15·16 지역을 신속하게 확보해, 거리에서의 기동력과 지배력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승리 조건 : 스페인측이 군사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게임에서 가능하지 않다. 그 운명의 날, 스페인인들은 유린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게임상의 동기를 창출하기 위해서, 역사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스페인측

의 승리가 되는 룰로 했다. 나폴레옹마저도 감명을 받은 마드리드 시민의 용맹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나폴레옹은 후에 센트·헤레나섬에서 이렇게 말했다.「반란을 일으켰던 스페인인들은, 한사람 한사람이 명예 있는 전사였다」라고.

이 반란은, 대체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계속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게임의 1턴은 실제의 30분 전후가 된다. 양진영의 사상자수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하지 않다. 분명한 수치는 영원히 수수께끼인 것이다. 빈약한 무장으로 통솔도 되지 않은 소수의 시민에 의한 강력한 반항이라고 하는 해석을, 프랑스에서는 좀처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병사의 사망자 수는 200에서 1800명 정도고, 거기에 행방불명과 부상자의 수가 더해진다. 스페인의 사망자는 반란 진압 후에 행해진 처형에 의한 다수의 사망자를 세지 않으면, 대략 400명의 시민이 죽었다고 추측되고 있다.

스페인측 이벤트 카드

호세·브라스·모리나·소리아노(Jos Blas Molina ySoriano) : 반란의 계기가 된 남자이다. 그 후, 프랑스 군부대를 피하면서 많은 시민을 인솔해 대포 광장으로 향하여 무기를 손에 넣으려고 했다. 몬테레온 방위에도 참전해, 5월 2일 이후는 구릉지대에 들어갔다. 독립전쟁이 종결할 때까지 게릴라전에 온몸을 던지게 된다. 페르난도 7세는 그에게 약간의 연금도 주지 않았다.

루이스·다오이스(Luis Daois) : 포병 대위이며, 대담하고 용감한 사관이었다. 프랑스에 복종하라 라는 상관으로부터의 명령과 시민 및 스페인국의 명예를 지키고 싶은 스스로의 의지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대포 광장 방위전에서 생명을 잃게 되었다. 그는 막사 입구에 설치된 대포 옆에서 죽었다.

페드로·베라르데(Pedro Velarde) : 포병 대위. 그는 스페인 군인 모두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용감하고 신의에 넘친다고 생각하고 프랑스와의 항쟁에서 최종적으로 스페인군이 이긴다는 꿈을 꾸고 있었다. 몬테레온 방위전에 있었고 친구인 루이스·다오이스와 함께 전사했다.

하신티·루이스(Jacinto Ruiz) : 포병 중위. 그는 몬테레온을 계속 방위하였고 후에 사건의 귀중한 목격자가 되었다. 그는 마드리드의 사건을 모스트레스 시장에게 알리게 되었고 주둔지의 전투로 중상을 입은 상태여서 이듬해 카세레스의 트르히요에서 죽었다.

모스트레스 시장(El Alcalde de Mstoles) : 이름은 앙드레스·트레 폰이라고 한다. 82세의 그는, 농사일을 갔다가 귀가 하는 중에 해군 서기관 후안·페레스·비라미르로부터

터 마드리드의 반란소식을 들었다. 그는 걱정과 대담함을 발휘해, 즉시 프랑스에 대한 선전포고에 서명했다. 그리고, 그것을 스페인의 전역에 보내도록 명령했던 것이었다.

수감자의 참전(Los Presos de la Crcel de la Corte) : 법정 형무소의 수감자 94명 중 56명이, 「외국인에 의한 생명의 위기와 국익을 위해서」 출소하는 허가장을 간수장에 요구해 전투가 끝나면 형무소로 돌아올 것을 약속했다. 지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 출처 소원은 수리되었다. 마조르 광장에 설치된 프랑스 군의 대포를 노획한 것은 이 특이한 집단이 한 위업의 하나이다. 수감자들이 발사한 이 대포는 당황하는 프랑스군 병사를 향해 정확하게 떨어졌다. 다음날,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형무소로 돌아왔다. 3명 중 1명은 사망했고 1명은 부상했으며, 남은 1명만 탈주자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들은 스스로의 맹세를 지켰던 것이다.

탈주병의 참전(Los soldados se escapan de sus cuarteles) : 불간섭의 엄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스페인군 병사가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마드리드 시민을 지원했다. 시민 집단에 참가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란자들에게 무기나 탄약을 지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톨레도문의 저항(Las "Manolas" de la Puerta de Toledo) : 마드리드 남부에 살고 있던 하층계급의 여성의 상당수는 스스로의 생명을 희생해, 거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프랑스 군기마병의 발밑에 몸을 던졌다. 그녀들은 말에게 상해를 입혀 기병을 낙마시켰다. 한 번 떨어진 기병은 모여든 시민들에게 몸통갑옷 틈새를 꿰뚫려지는 공포에 직면했다.

르그랑 장군의 아들을 죽인 화병(Un tiesto mata al hijo del General Legrand) : 이 사건은 인판타스 대로로 일어났다. 5월 2일에 참전한 마드리드 시민의 무장에 대해 알 수 있다. 산티아고 교회에서 일하고 있던 벽돌 직공들은 아래를 지나는 프랑스군을 향해 도구나 돌을 내던졌다. 그 거리의 집집마다 군대를 향해 엽총을 발사하거나 가구, 돌 등을 던졌다.

명령 차단(rdenes interceptadas) : 프랑스군 전령의 대부분이 무라의 명령을 부대에 보내는 도중에 살해당했다. 그 결과적으로, 레티로 공원에 주둔 하고 있던 프랑스 군기병대는 정오가 될 때까지 참전 할 수 없었다.

5월 2일의 히로인(Las heronas del 2 de Mayo) : 마뉴에라·마라서냐, 클라라·델·레이, 베니타·파스트라나.....남자들 못지 않게 싸운 여성의 수는 매우 많다. 그녀들은 용맹함과 자유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보였다.

프랑스측 이벤트 카드

마르셀·조아킴·무라(Mariscal Joachim Murat) : 베르크 대공이며, 나폴레옹·보나파르트의 처남이었다. 일설에 의하면, 나폴레옹은 마드리드 시민을 분개시키고 폭동을 유발하도록 무라에게 명하였다고 한다. 리스본, 밀라노, 로마, 카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폭동에 계속 되는 반란은 피를 부르게 되어 자연스럽게 공포정치가 지배한다고 하는 줄거리였다. 무라는 황제가 스페인왕의 지위를 주지 않아 실망했지만, 그 대신에 나폴리왕이 되었다. 러시아 원정과 라이프치히의 싸움의 후, 무라는 오스트리아·영국과 독자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해서까지 지키려고 한 왕위에서 쫓겨난다. 1815년, 나폴리에서 총살형을 당해 생을 마감한다.

나폴레옹의 명령(rdenes de Napolen) : 나폴레옹은 반란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었다. 사료에 따라서는 반란을 선동했다고 여겨지고 있다. 줄거리를 예측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반란의 주모자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스파이가 있었을 것이다.

포병(Artillera) : 프랑스군은, 오리엔테 광장이나 마조르 광장, 안톤·말틴 등 마드리드의 중요 지점에 포병대를 배치하고 있었다. 아토차 대로와 마조르 대로를 분할 라인으로 하여 마드리드를 양분할 수 있었다.

기병(Caballera) : 3,000명에 가까운 기병이, 레티로 공원과 엘·포시트 지구에서 알칼라 거리와 성헤로니모 대로를 통해 마드리드에 들어갔다. 거기에는 잔인하기로 유명한 이집트의 맘르크 기병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유럽을 파괴한 2,000명의 중기병대는 카라반체레스에서 출군하여, 톨레도문(여기서 격렬한 저항을 받았다)과 외교관 광장을 지나 마드리드에 입성 했다.

프랑스의 협력자(Colaboracin con los franceses) : 마드리드의 거주자 모두가 프랑스에 항쟁하고 있던 것은 아니다. 새로운 주인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프랑스의 침략은 사회적 지위 향상의 기회가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채를 청산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써 반란에 참가한 이웃을 밀고했다. 또한, 프랑스가 수립하려고 하는 정체가 스페인의 진보로 연결된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경멸을 담아 「조세핀」이라고 불렀다.

엘리트 부대(Tropas de Elite) : 나폴레옹이 스페인에 보낸 부대는 숙련병은 아니었지만, 모든 사관 및 일부 군단(웨스트 팔리아대대, 아일랜드대대, 프로이센대대, 천탄병, 황제 친위 기마대등)은 프랑스의 정예였다.

발포 명령(Fuego Cerrado) : 군사 능력이 부족한 폭도와는 대조적으로 프랑스군의 밀집 대열이 발포하면 완전하게 전방을 차단하는 벽이 되었고, 마드리드의 좁은 대

로나 광장에서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다.

군중 해산(La Turba se Dispersa) : 이것은, 프랑스 플레이어의 액에 들어가 있는 2장의 「함정」카드 중 1장이다. 예측할 수 없는 군중의 움직임이 스페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총살 처형(Fusilamientos) : 프랑스 텍에 들어가 있는 2번째 함정 카드이다. 총살대에 의한 가혹한 처형과 프랑스 군의 약탈은 스페인 뿐만 아니라 유럽 전 국토에 널리 알려졌다. 협박과 보복을 의도한 무라의 명령 그대로 무수한 스페인인의 시체가 몇 일간이나 대로에 방치되었다. 이 사건이 프랑스에 대한 선전포고를 이끌어 냈고 유럽에서 스페인을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게임 디자인에 대해서는 몬테레온 공원에서의 영웅적 행위에 관한 루이스 중위의 증언이 이 처참한 사건이 일어난 하루 속에서 한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 있다.

무질서(Desorden) : 뭐라고 말하든지 결국, 스페인 「군」은 군사 훈련도 받지 않은 단순한 시민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경계도 하지 않고, 명확한 목적도 없이 움직였다.

싸움은 끝났다("Paz, paz, que todo est compuesto") : 오후, 프랑스와 스페인의 사관들은 흰 손수건을 흔들면서 마드리드 시내를 돌아 시민에게 진정을 호소했다. 불행하게도, 평화가 찾아오는 때에 목숨을 잃은 아무죄도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나이프를 휴대하고 있다는(당시의 관습) 죄로 체포되어 살해당했다. 또한 일에 사용하는 바늘이나 가위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체포된 사람도 있었다.